

'북학'과 박제가의 연행: 교류·통상과 공간인식의 확산

1. 박제가의 교류와 우정

박제가(1750~1805)의 본관은 밀양(密陽), 우부증시를 지낸 박평의 서자로 태어났다.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蕪)·위향도인(葦杭道人)이다.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공부에 열정을 두었다. 그런데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 박제가는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특히 시와 문장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박제가는 북학파의 일원으로 박지원(朴趾源)·이덕무(李德懋)·이서구(李書九), 백동수 등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교류와 우정이 박제가의 서자와 곤궁 속에서 박제가의 일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박제가는 1778년 1차 연행 이듬해 1779년 이덕무, 유득공, 서리수와 함께 규장각 검서관에 제수되었다.

백동수와의 만남과 우정

백동수를 통해 이덕무와 만남, 이덕무와 특히 친근한 사이

이덕무·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통지' 편찬

1769년 박지원과 처음 만남

박제가가 찾아갔을 때 박지원은 옷깃을 채 여밀 경황도 없이 황급히 마와 맞으며 몸소 쌀을 써어 다관에 밥을 안치고 흰 주발에 퍼서 옥소반에 받쳐 내온 후 술잔을 들어 박제가를 위해 축수

백탑과

이덕무, 이서구, 서상수, 유금, 유득공의 집은 가까이 붙어 있는데, 박제가는 한번 갔다 하면 돌아오는 것도 잊고 열흘이고 한달이고 연거푸 머물었다. 시문이나 척독을 썼다 하면 권질을 이루었고 술과 음식을 찾아다니며 밤으로 낮을 잊고 머물렀다고 한다.(정유각집, 백탑청연집 서문)

대저 벗이란 반드시 한잔 술을 마시며 정중히 응대하고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는 것만은 아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절로 말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그 사귀의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정유각집, 강원도 인제현 기린산골로 떠난 백동수를 보내며)

2. 국내 개혁과 후생(富), 북학

가. 국내개혁과 이용후생

박제가는 1786년에 정조에게 바친 丙午所懷에서 자신의 개혁전략에 대한 구상을 집대성하고 있는데, '선비' 중심의 사회질서와 부에 대해 전통적인 질서와 관념의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당시 유교질서에서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다. 규장각 검서관으로 신분의 위협의 느낄 정도라는 점에서 박제가는 다른 서얼보다 과격한 개혁론을 주장하고 있다.

- 국내 정치적 개혁: 과거론

- 국내적 이용후생의 모델: 이익의 개념과 도와 예 등 통치이념과의 관계

본국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글로 기록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을 첨부하여 하나의 설을 만들

시장과 상인의 역할의 문제: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

장사에 대한 인식: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나 멸망, 절개는 여전하게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儒生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기도 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으로 가서 골동품을 사기도 한다. 내가 용복사에서 지체가 높은 인물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비웃었다.

- 군사적 측면

성곽의 축조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돌로 쌓은 성곽의 비효율성, 벽돌을 사용한 축조의 효과성,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방어하는 설비인가? 아니라면 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버리고 도망하는 설비인가? 전자라면 우리나라에는 성곽이 하나도 없다, 성의 주위 넓이 문제, 성 내부의 문제

활의 성능에 대한 관심

兵論: 군사훈련, 칼과 갑옷, 활의 성능

북학은 이용후생의 관점과 더불어 조선 내 선비들의 인식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과정에서 천하의 도서를 국내로 들여오게 할 수 있으므로 조선의 풍속에 얽매인 선비들의 딱 막히고 고루하며 좁은 견해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병오소회)

나. 운송·통상과 북학: 조공의 대안(?)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백성들을 위한 이용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器機에 대해 청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학의에서 청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조선 기기의 단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용후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의 기기에서 조선과 청의 우열을 극단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제가의 대청교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박제는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수레와 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학의는 상업과 유통, 수레와 배, 도로망의 확충 등 경제적 이득 중심으로 구상되어 있다.

배로는 외국과 통상할 수 있고 수레로는 말과 노새를 편하게 하였다.(정유각시집 제 2권 '새벽에 앉아 감회를 쓴다' 7편 중)

수레에 대해 짐을 싣는 수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타는 수레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손님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움직이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박제는 1778년 1차 연행 시 이덕무와 함께 자주 수레를 타보기도 하였다.

* 북학의 내편 첫 항목이 수레

수레를 이용하여 온갖 물건을 싣기 때문에 수레보다 이로운 도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수레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청나라가 수레를 이용하여 사람을 태우고 짐을 효과적으로 실어 운송하는 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연경에는 백주 대낮에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덜컹덜컹 들려서 향사 우레치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러한 수레에 대한 관심은 가난, 즉 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레로 짐을 실어나르면 사방의 물가의 고하는 수일 내로 고르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이 가난한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농사는 비유하자면 물과 곡식이요, 수레는 비유하자면 혈맥입니다. 혈맥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찌고 윤기가 흐를 이치가 없습니다.(정유각집, 왕명에 따라 북학의를 지어 올리며)

북학의 '수레'에서 흥대용에 대해 인용

“수레가 통행할 길을 닦는다면 몇 결(結)의 전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레로 인한 이익은 그 잃은 것을 넉넉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제는 사신의 행차에도 도보로 따라 가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레의 편리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통주성 아래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들을 보면서 해상을 통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

배에 대해서도 운송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좁쌀 30만석의 운송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동독무관 하유성이라는 하는 자를 배에서 만나 보았다. 배의 규모로 보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파도가 높이 쳐서 만리 뱃길이 때때로 위험하다고 해도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다. 그러면서 조선은 수레를 이용하는 이익을 완전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를 통행시키려면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다리와 뱃전에 가로놓은 가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북학의 ‘배’)

수레 1백대에 물건을 싣는 것은 배 한척에 싣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육로로 1천리를 가는 것은 배를 타고 해로로 1만리를 가는 것에 비하여 편리하지 않다. 따라서 통상을 하려는 상인은 반드시 수로로 가는 것을 중시한다.

재능이 빼어난 工匠을 모아 선박을 만들되, 중국의 선박 제조술을 채택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건조, 荒唐船을 활용하여 청의 선박 제조 기술 습득 가능(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경제적 재부의 관점에서 통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육로로는 재화가 북경으로 유통되지 않고 해로로는 상인이 왜국을 넘어가지 않는다.”(정유각시집 2권 ‘새벽에 앉아 감회를 쓴다’ 7편 중)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국과 통상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사하는 배를 외국과 유통시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왜국놈들은 약삭빨라서 늘 이웃나라의 틈새를 엿본다. 그렇다고 안남, 유구, 대만과 같은 나라는 뱃길이 험하기도 한고 또 너무 멀어서 그들 나라와 모두 통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오직 중국밖에 없다.”(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러한 통상이 현실적으로 조공이라는 내적인 관계로 인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설득 논리를 중국에부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진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없는 것을 얻고자 무역하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다. 일본과 유구, 안남, 서양의 무리가 모두 절강성, 교주, 광주 등에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뱃길을 통하여 상인들이 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병오소회)

중국은 태평을 누린 지가 1백년으로 공순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구, 안남 서양의 나라조차 모두 闕과 절강, 교주, 광주 등지에서 교역을 한다. 저 여러나라들과 함께 끼고 싶다."(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러한 논리는 정형화된 조공질서의 규율을 받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의 경제관계를 원용하도록 요청하자는 것이다.

"국력이 조금 강성해지고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을 얻은 상황에 이르면 마땅히 차례대로 다른 나라와도 통상을 맺어야 한다."(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경륜이 있고 재능과 기술을 가진 선비를 선발하여 한 해에 열명씩 중국으로 가는 사신 행렬이나 역관들 틈에 섞어 보낸다. 한 사람에게 세 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 고려와 달리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배 한척 왕래한 적이 없다. 일본과 중국의 중개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변경 천하의 진귀한 물건과 중국의 고동서화가 나가사키에 폭주하고 있다.

박제가의 북학은 단순히 청의 문물의 장점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인재의 파견을 통한 학습과 조직 신설이라는 실천적 전략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박제가의 북학은 사농공상의 타파와 상업의 중시라는 국내 개혁과 밀접한 연계 속에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경륜이 있고 재능과 기술을 가진 선비를 선발하여 매년 열명씩 중국으로 가는 사신 행렬의 裨將이나 역관들 틈에 섞어 보낸다. 중국의 문화를 배우되, 청의 기물을 사들이기도 하고 기예를 전수받기도 하여 그 법을 조선에 전파시키도록 한다.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백성을 교육시키고 물자를 장만하여 그 기예를 시험해보도록 하자는 것이다.(북학의 재부론)

이러한 점에서 박제가는 연행사절의 틀 속에서 이를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갈등에 대처하려는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박제가의 북학은 청을 넘어 서양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의 흠찬감에서 曆書를 만드는 서양인들은 기하학에 밝고 이용후생의 학문과 기술에 정통한데, 관상감의 비용으로 서양인들을 초빙하여 관상감에 근무하게 하고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천문과 각종 기기 제조 기술을 배우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청의

영역 내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북학의 영역은 서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夷로서 서양인 초빙에 대한 설득 논리

중국에 온 서양인들: 결혼도 하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고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먼 나라를 여행하여 포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수십명을 가옥 한 채에 거처하게 하면 난을 일으키지 못한다.

서양인의 종교가 불교와 비슷하여 폐단이 있으나 서양인이 갖고 있는 후생에 필요한 도구는 불교에는 없었다.

서양인들이 소유한 도구에서 열가지를 취하고 나머지 한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다.(병오소회)

3. 명분론과 현실적 대청인식

최치헌과 조헌에 대한 사모(북학의 자서)와 북학에 대한 필요성 인식

공자와 주자를 인용하여 이용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행시 본국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록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첨부

맹자 '등문공상'에 나오는 기사 중 '北學'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의 제목 부여
이와 같이 이용후생을 위한 북학에 대해 주자, 공자, 맹자 등을 활용하여 정당화 및 주장 전개

중국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

중국을 빼앗은 주체가 되놈이라는 것만 알고 빼앗김을 당한 존재가 중국인 것을 모르고 있다.

만약 백성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법시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인은 그 법을 채택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옛 땅에서 만든 법이 아닌가?

조나라 무령왕의 일화 소개: 옛날의 영웅은 원수에게 반드시 보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호복을 입는 것쯤이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필부가 원수를 갚고자 할 때 원수가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칼을 빼앗을 방법을 고민하는 법이다. 당당한 천승의 나라로서 천하에 대의를 펼치려고 하는데도 중국의 법 하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학자 한사람과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명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우리가 당한 치욕을 설욕하고자 한다면 20년 동안 힘써 중국을 배운 다음에 함께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오랑캐라는 한 글자로 천하의 모든 것을 말살하고 있다, 청나라가 빼앗은 중국의

전통도 존속 즉, 청국 내 중화문명적 요소 인정↔ 중국의 풍속은 이렇기 때문에 너 무나 좋다(존주론)

배울 만한 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천하가 전부 오랑캐라고 매도하는 것은 남들을 속이는 짓이다.

중국에 육상산, 왕양명의 양명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자의 적통 역시 그 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는 한 글자로 천하의 모든 것을 말살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 중에도 퇴계와 같은 자가 있고 문장가에는 간이(최립)와 같은 자가 있으며 명필 중에는 한석봉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활를 낸 다. 역관의 말을 오히려 믿는다.(북학변 1, 2)

박제가는 재주와 사상이 풍부하고 초서와 예서가 출중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사모하 고 비범한 기상이 특출합니다.(이덕무가 '건연집'의 필자들을 이조원에게 소개하는 편지)

4. 교유와 북학, 서양으로의 공간 확산

박제가는 4차례에 걸쳐 연행을 다녀왔다.

박제가는 1778년(정조 2년) 사은사 체제공을 수행하여 처음으로 연행에 동참하였다. 이때 이덕무가 동행하였고 귀국 후에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북학의』를 저술하였 다.

12년 후인 1790년(정조 14년) 5월 건륭제의 팔순절을 맞아 유득공과 함께 진하사 황 인점의 일행으로 연행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1790년 9월 2차 연행에서 귀국하던 중 정조의 특명으로 동지사를 수행하여 다시 연행에 동참하였다.

1801년 사은사 윤행임 일행과 함께 朱子書 구매를 목적으로 유득공과 함께 연행에 동참하였다.

가. 청인사와의 교유와 지식질서

박제가는 자신보다 앞서 연행했던 김재행, 홍대용, 유금 등이 정리한 필담을 읽고 연행 이전에도 안면이 없는 중국 지식인에게 서신 발송

중국 지식인과 적극적으로 교유하도록 초정은 이끈 것은 홍대용과의 만남이었다. 특히 홍대용이 반정균 등을 만나 나눈 필담을 편집한 『天涯知己書』를 보고 홍대용 과 접촉하였다.

북경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4차에 걸친 연행에서 교유한 인 물과 교유의 내용은 문집과 북학의, 호저집에 실려 있다.

박장암은 호저집 범례에서 초정이 교유한 인물을 모두 110명으로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 직접 만난 사람: 102명
- 풍모를 그리워했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 4명
- 편지는 왕래했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 1명
- 명성을 듣고 그리워한 사람: 2명
- 시문을 주고받았으나 교제하지 못한 사람: 1명

박장암은 백여명의 인물과 교유를 둔 과정과 양상, 교유의 결과물을 자료를 중심으로 엮었다.

연경잡절에서 인물에 대한 교유에 대해 첫째, 그들이 자신의 학식과 재주를 아꼈음을 밝히고, 둘째, 그들의 長處에 대한 예찬이며, 셋째, 6, 7년이 지난 현재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에는 배울 만한 선비가 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문학하는 선비 몇 명에 불과할 뿐 도를 전하는 큰 학자를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만한 학자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중국에 육상산, 왕양명의 양명학이 존재하지만 주자의 적통 역시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제가는 연행사절로 가는 사신들의 교유행태에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

“청나라가 흥성한 이래로 우리 조선의 사대부는 중국과 연계된 일체의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억지로 사절을 받들어 청나라에 들어가는 하지만 일체의 행사나 문서와 대화를 주고 받는 일을 모조리 역관에게 맡긴다. 책문에 들어서서 연경에 이르기까지는 2천리 길인데 경과하는 고을의 관원과 상견례하는 법이 없다.”(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나. 박제가의 국제정치적 공간 인식

비록 초정이 중국만 여행하였지만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국인을 초빙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용후생 방법에 정통한 서양인을 국내로 초빙하자고 주장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두려움을 쉽게 느끼고 의심을 잘한다. 풍속과 기상이 우둔하고 재능과 식견이 확 트이지 못했는데, 오로지 외국과의 통상이 없는 풍속에 기인한다”(북학의)

연경잡절의 異國에 대한 연작에서 유구국의 비녀, 묘족의 닭털 장식, 대만 사람의 귀고리, 남장 사람의 복건 등 이들의 특징적인 복색을 정리하고 있다. 이국에 대해서는 안남, 류구, 묘족, 대만, 남장, 哈密, 만족, 서장, 법왕, 회회, 섬라, 예수교, 몽고

등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국의 풍물이나 풍습을 비롯하여 개국 연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두루 언급하고 있다. 한족뿐만 아니라 여진족, 위구르 왕자 등과도 교류하면서 국제정세에도 깊은 관심과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박제가 주변에 모여들었던 서열들은 일본 통신사행에서 실무를 맡아 보았던 신분이었으므로 이들의 도움으로 박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소상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안대회, 북학의, 287쪽)

일본의 풍속은 온갖 기예에서 천하제일이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비록 그의 기술이 자기보다 꼭 낮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신다.

왜국 사람들 중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자가 간간이 있어 天台山과 安蕩의 기이한 경치를 술술이 말하고 있다.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의 중국 먹을 찾았을 때 중국 먹을 가지고 왔다는 일화 소개(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박제는 중국에 유입된 서양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벽돌을 구워서 가옥을 짓기 때문에 1천년이 지나도 보수하지 않는 건물이 있다고 들었다.

“중국에서 서양인의 醫書를 번역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얻지 못하였다. 구라파 사람은 네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상급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의술과 道學을 배운다. 그러므로 의술에 정통하지 않은 자가 없어 병자의 생사를 잘 안다고 한다.”(북학의, 藥)

다. 利用과 국제적 소통: 외국어 습득

박제는 중국어를 잘 구사하였다.

문자와 문명관: 통역의 문제

전란 시의 기밀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역관만 쳐다보는 문제

사대부가 漢語뿐만 아니라 만주어나 몽고어, 일본어까지도 모두 배워야만 수치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역관 선발의 문제와 역관들의 역량

역대의 임금께서는 중국어를 익히도록 명을 내리셔서 朝會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말의 사용을 금하는 팻말을 설치하기도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중국말로 소송에 임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시책이 단순히 사절 사이의 통역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장차 큰 일을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말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다. 현재에는 중국어를 오랑캐가 지껄이는 조잡한 말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2012년 한중 학술회의

- 2개의 형태로 추진
 - 제주포럼(3천만원): 2012년 5월말, 중국, 미국, 일본학자 등으로 구성
 - 베이징 포럼(5천만원): 7월초, 한중 학술회의, 역사학회를 포함하는 기획안
 - 산해관 혹은 승덕 답사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연구소 필요

- 개최 방식
 - 국내 연구소와 중국 내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
 - 동북아역사재단은 후원

- 금년 11월 25-26일 한중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장소: 동북아역사재단)
 - 재단 측에서 '연행록의 국제정치적 함의'(가제)로 주제 발표 요청